

‘BUY-광주·전남 운동’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애용합니다

연료비 경유대비 3분의1...러시아서 생산해 수입

(주)탑인프라 ‘우드펠릿 난방기’

지난달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우드펠릿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광주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주)탑인프라(대표 박찬진)가 러시아에서 만든 것이다.

그동안 외국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내 기업이 현재 가공공장을 세워 제조한 펠릿을 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드펠릿(wood pellet)은 제재톱밥 또는 숯가꾸기 산물을 톱밥으로 제조한 뒤 압축해 만든 작은 분필 형태의 목재연료다. 우드펠릿은 4500cal 이상의 높은 열량을 내는데다 연료비가 등유·경유대비 3분의1에 불과해 산업용으로 적합하다. 완전 연소로 그을음이나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온 펠릿 3200t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우드펠릿 1만3000t의 25%에 이르는 물량으로, 열병합 발전과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난방 등에 쓰이게 된다.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에 입주한 탑인프라는 러시아 산림자원개발 투자신고 1호 기업으로, 지난 2009년 5월 러시아 현지법인 ‘탑인프라루스’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간당 4t 규모의 우드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구축,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인근에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투자도 마쳤다.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지역에서 목재가공 사업을 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신뢰에 따라 하바로브스크 정부는 탑인프라의 원자재



확보를 위해 인근 산림지역 벌채권을 허가했다. 임목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탑인프라는 내년부터 제2공장에서 최소 20년간 연 10만t 규모의 우드펠릿을 생산해 전량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탑인프라는 연료인 우드펠릿과 난방기를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 난방기는 컨트롤러를 통해 온도 설정만으로 전자동으로 동작하고, 연료공급의 속도를 조절한다. 연료가 부족하면 스스로 진단해 알려준다. 또 열전달부를 스테인레스로 사용해 열효율을 높였다. 불씨 자동유지 기능이 있어 재점화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였다.

지난 2001년 설립한 탑인프라는 건설·태양광 사업으로 출발해 환경·신재생에너지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45명의 직원이 지난해 3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홈페이지 www.topinfra.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너지 효율 높고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제품

(주)티케이일렉트로닉스 ‘LED 조명’

(주)티케이일렉트로닉스(대표 박상우)의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안전하다. LED 벌브램프와 MR16, 다운라이트 등을 주로 생산하며, 모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전기용품안전 인증을 받았거나 추진 중이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LED조명은 백열등·할로겐램프 등 기존 광원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어 에너지효율이 높다. 또 CO₂,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유해 전자파·자외선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독자적인 방열설계 기술로 발열을 최소화해 냉방비 등 에너지절감 효과도 탁월하다. 수명은 3만~5만 시간이다.

티케이일렉트로닉스의 LED 벌브램프는 기존 백열등·삼파장램프의 대체용으로 백열등 대비 85%, 삼파장램프 대비 60%의 에너지가 절감된다.

30W 할로겐램프 대체용으로 개발된 LED MR16램프는 할로겐램프보다 에너지 효율이 80% 이상 높다. 색감이나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갤러리·박물관의 천장 등이나 의류·귀금속 매장, 인테리어용 조명으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장시간 불을 켜놓아도 발열량이 적어 발열로 인한 냉방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타사 제품에 비해 광속 및 광효율이 최대 56%, 61% 우수하다.

LED 다운라이트는 천장에 매립하는 방식의 조명으로 타사 제품보다 최대 48%의 광속 및 광효율이 좋다.



주로 의류매장 등 상업용 공간이나 미술관·극장·건물의 복도·거실의 주조명으로 사용된다.

티케이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6월 설립,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전자부품연구원에 입주했다. 올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고,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했다. 직원 7명이 올해 매출 10억원을 기록했다.

독일 및 아르메니아 수출을 위해 독일 T-온라인사 등과 수출협약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www.tkelectronics.co.kr 전화 062-975-744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사 무더기 입찰 제한

법원이 제동

광주·전남지역 16개 중견건설사를 포함해 전국 68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금지한 조달청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분안 소송 관결 때까지 입찰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법원은 금호산업 등 광주·전남지역 16개 건설사 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분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재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13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무계산서 등을 하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다.

제재 대상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와 금호산업 등 광주·전남 16개 중견건설사가 포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체

일자리 창출 외면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광주·전남지역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3일 ‘중소기업 포커스’에 발표한 16개 광역자치체의 고성장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중사자 10인 이상 전국 사업체 4만3024개사 가운데 고용이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6.6%인 2872개사로 조사됐다.

고성장 기업은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기업으로 3년간(2004~2007년) 연평균 고용 증가율 20% 이상 달성한 기업이다.

광주는 52곳, 전남은 64곳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3·11위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전체의 33.7%인 969개사였다. 이어 서울(294), 경남(283개), 인천(255

개), 부산(214개), 경북(180개), 대구(149개), 충남(130개), 울산(76개), 충북(78개)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율은 광주 6.7%, 전남 6.8%로 중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6.7%다.

하지만 고성장기업 중 종사자수 1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광주·전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었다. 50인 이상의 중기업 비율 역시 광주 1.93%, 전남 1.57%로 전국 평균(4.64%)에 크게 못 미쳤다.

광주지역 고성장기업 75%, 전남 85.9%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분포는 광주의 경우 기타 기계·장비가 11개사(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무·플라스틱 9곳, 자동차·트레일러 8곳, 조립금속과 전자부품이 각각 5곳이었다. 전남

지역은 음·식료품(27개, 42.2%), 기타 운송장비(9개), 조립금속(7개), 고무·플라스틱(5개)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고성장 중기업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고성장기업이 지속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고성장기업의 수가 적은 지역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역보험 103억달러

광주·전남 업체 지원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3일 울머어 10월 말까지 광주·전남 전체 수출액 448억달러의 22.9%인 약 103억달러를 직·간접적으로 무역보험·보증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사가 울머어 11월까지 직접 지원한 무역보험·보증은 300여개사 37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70개사 3900억원보다 지원액은 조금 줄었지만 업체 30여곳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11월말 현재 16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9억달러)보다 9% 증가했다.

한상렬 광주전남지사장은 “내년에는 지역 내 대기업 협력사뿐만 아니라 자동차·화학 등 주력산업 관련 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수출업체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3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과 ‘공생발전을 위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총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총15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보증대상은 광주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따라서 지역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건 포함 총 5000만원까지는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보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의 보증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5%까지 특별 우대하고 기존 여신에 불구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도 협약보증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처리기회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다도해의 아름다운 휴식을 담은 호텔

예향 남도의 문화가 가득한 목포에서 최상의 호텔 서비스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 호텔현대(목포)

호텔현대는 전남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로서 객실 발코니에서 다도해의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500여명의 고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을 비롯해 기업 및 공무원 연수, 학술회의, 연회 등이 가능한 중추연회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이벤트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61-463-2233 / www.hyundaihotel.com

208실의 고급객실 / 컨벤션홀(예당홀) / 실내테니스장 / 실내수영장 / 남자사우나 / 헬스클럽 / 스크린 골프 / 당구장 / 키치숍 / 양식당 / 로비라운지 등



현대삼호중공업

- 코스피지수 1864.06 (-35.70)
- 코스닥지수 511.30 (-3.92)
- 금리 (국고채 3년) 3.35% (-0.01)
- 원·달러 환율 1154.00원 (+7.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